

Paul Ricoeur의 해석이론에 비추어 본 설교학적 함의*

한 우 리**

국문초록

본 논문은 프랑스 철학자 Paul Ricoeur의 해석 이론에 비추어 설교학적 함의를 구성하고자 한다. Ricoeur의 해석 이론은 텍스트에 대한 역사성과 의미의 즉각성에 대한 단정을 넘어 본문의 역사적 맥락과 독자의 만남을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런 Ricoeur의 해석학적 고찰은 보다 비평적이고 복잡한 세계관을 가진 오늘날의 현대 독자들에게 적절한 해석학적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 본문에 대한 이런 해석학적 접근은 본문의 일차적인 의미에 대하여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성경의 넘쳐나는 의미에 관한 탐험을 추구함으로써 텍스트에 대한 개인적 재-경험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Ricoeur는 본문의 의미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독자로 하여금 이해에서 설명으로, 다시 설명에서 전유(appropriation)로 이동하는 설명과 이해 사이의 변증법적 움직임을 알 수 있기를 제안한다. 독자는 본문에 대한 설명이나 비평적 물음을 통해서 본문이 열어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독자로서 설교자는 본문이 열어주는 세계에 참여함으로써 본문에 의해 열린 세계 내에서 새로운 존재 방식을 얻게 된다. 필자는 Ricoeur의

- 논문 접수일: 2024년 3월 13일
- 논문 수정일: 2024년 4월 16일

- 논문 심사일: 2024년 4월 15일
- 게재 확정일: 2024년 4월 23일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 학위(Ph.D) 논문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을 밝힙니다. 참고: Woori Han, *A Transformative Homiletic for the Contemporary Assemblies of God of Korea: Insights from the Hermeneutics and Theology of Paul Ricoeur and St. Bernard of Clairvaux*, (Ph.D. Diss. Graduate Theological Union, Berkeley, CA, 2021).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겸임교수 / 실천신학 / 예배 · 설교학

해석학적 통찰을 분석하여 독자로서 설교자가 성서 해석 방법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설교학적 함의의 여섯 가지 특징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 논문은 텍스트가 열어주는 새로운 의미와 지시들의 총체를 통해 독자로서 설교자에게 새로운 존재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변혁적 성경 읽기의 가능성을 소개한다.

주제어: 폴 리쾨르 (Paul Ricoeur), 본문의 의미, 전유, 본문 앞의 세계, 변혁적 읽기

I. 들어가는 글

본 논문은 텍스트의 의미를 원래의 맥락에서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과 텍스트를 실존적으로 전유(appropriation)하는 것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하는 프랑스 철학자 Paul Ricoeur의 해석 이론에 비추어 설교학적 함의를 구성하고자 한다.¹⁾ Ricoeur의 해석 이론은 인간의 해석 경험에 대한 이론적이고 존재론적인 관심에 초점을 맞춘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명확히 말하자면, 텍스트에 대한 Ricoeur의 접근법은 성서 본문의 역사성과 의미의 즉각성에 대한 단정을 너머 본문의 역사적 맥

- 1) Paul Ricoeur의 해석학과 설교학과의 학제간의 연구에 관한 논의들은 다음을 참고: 최진봉, “폴 리쾨르의 ‘믿음의 해석학’ (Hermeneutic of Belief)에 대한 설교학적 전망,” 『장신논단』 46 (2014), 275-301; 김대혁, “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위한 성경적 전유를 통한 적용에 관한 제안,” 『복음과 실천신학』 52 (2019), 38-70. (<https://doi.org/10.25309/kept.2019.8.15.038>); 김대혁, “Abraham Kuruvilla의 설교 방법론에 관한 비평적 평가,” 『복음과 실천신학』 60 (2021), 11-44. (<https://doi.org/10.25309/kept.2021.8.15.011>); 최진봉, “설교를 위한 본문의 해석학적 스윙(swing)의 실행에 관한 연구: 창 8:21-22, 9:8-17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87 (2023), 35-61. (<https://dx.doi.org/10.14387/jkspth.2023.87.35>); Josef Bleicher, *Contemporary Hermeneutic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80), 217-18.

락과 독자의 체험적 만남을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한다. Ricoeur는 성서 본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저자의 본래 의도를 발견하고자 했던 낭만주의 시대 해석학자들과는 다르게, 저자의 의도는 해석의 임무와 관련하여 결코 규범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²⁾ 오히려, Ricoeur는 본문에 대하여 이해해야 할 것은 본문의 지시(reference)에 의해 열려진 세계라고 강조한다.

Ricoeur의 해석학적 제안은 비평적이고 단순하지 않은 세계관을 형성한 현대 독자들에게 적합한 해석학적 대안으로 간주 될 수 있다. 사회 경제적, 지적 수준이 높아진 현대 독자들은 본문의 즉각적인 의미에 대한 지나친 강조에서 벗어나 성경의 역사적 맥락과 상징적 성격에 주목함으로써 본문을 개인적으로 다시 경험할 필요가 있다. Ricoeur는 상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독자로 하여금 이해에서 설명으로, 다시 설명에서 전유로 이동하는 설명과 이해 사이의 변증법적 움직임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³⁾ 이는 표면적인 의미(Ricoeur의 용어에 따르면, the first naïveté)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심층적인 의미(the second naïveté) 탐구로의 이동을 뜻한다.⁴⁾ Ricoeur에 따르면, 설명이나 비평적 의식은 이해의 첫 번째 단계(the first naïveté)와 이해의 두 번째 단계(the second naïveté) 사이의 매개로 나타날 것이다. 이해의 두 번째 단계에 도달한 독자는 텍스트의 의미나 상징을 전유할 수 있게 된다.⁵⁾

2) 낭만주의 시대 주된 해석학자라고도 할 수 있는 프리드리히 쉴라이어마허는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Friedrich Schleiermacher, *Hermeneutik und Kritik mit besonderer Beziehung auf das Neue Testament*, 최신한 역, 『해석학과 비평: 신약성서와의 특별한 관계를 중심으로』(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0), 43.

3)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74.

4)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87.

5) 김대혁, “성경에 나타난 ‘전유를 통한 적용’에 관한 해석학적·설교학적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54 (2020), 43-45. (<https://doi.org/10.25309.kept.2020.2.15.041>);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75.

그 순간, 독자에게는 성서 본문에 의해서 열려진 세상에서 가능한 존재의 방식 — 즉, 독자가 속한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 — 이 주어지게 된다.⁶⁾ 궁극적으로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독자의 존재 방식이 변혁을 이루게 된다.

이처럼 본 논문은 Ricoeur의 해석 이론에 비추어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시작한다. 첫 번째 장에서는 Ricoeur의 해석 이론을 설명과 이해 중심으로 다루는데, 이 두 가지 요소는 텍스트 자체를 너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계속되는 세계를 가리키는 증언으로서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현대 독자들이 그들의 성서 해석 방법에 적용할 수 있는 설교학적 담론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텍스트가 열어주는 지시들의 총체를 통해 독자들이 세상에서 새로운 존재 방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변혁적 성경 읽기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II. 펴는 글

1. Paul Ricoeur의 해석 이론: 설명과 이해 중심으로

신학자인 Jeanne Evans가 올바르게 설명했듯이, Ricoeur의 해석 이론은 언어의 존재론적 성격을 인정하는데, 이는 인간 행위와 사건의 의미가 구어담화(spoken discourse)와 문어 담화(written discourse)를 통해 매개한다는 점을 의미한다.⁷⁾ Ricoeur는 해석학을 “텍스트의 해석과

6) 김대혁, “Abraham Kuruvilla의 설교 방법론에 관한 비평적 평가,” 22–25.

7) Jeanne Evans, *Paul Ricoeur's Hermeneutics of the Imagination* (New York: Peter Lang, 1995), 15.

관련된 이해의 작동에 관한 이론”으로 간주한다.⁸⁾ Ricoeur의 해석 이론은 네 가지 범주를 사용하여 그의 해석을 구성하는데, (1) 담화로서의 언어, (2) 말하기와 글쓰기, (3) 은유와 상징, 그리고 마지막으로 (4) 설명과 이해이다. Ricoeur는 각 범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텍스트 해석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킨다. 첫 번째 단계에서, Ricoeur는 구어 담화를 의미(sense)와 지시(reference)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의 사건으로 탐구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Ricoeur의 관심은 구어 담화에서 문어 담화로 이동하여, 문어 담화에서의 의미가 발화자, 청자, 약호, 담화 방식 및 지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중점을 둔다. 세 번째 단계에서 Ricoeur는 은유와 상징의 개념을 통해 의미의 잉여를 분석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Ricoeur는 독해의 해석학에 집중하여 표현된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추측, 확인, 설명, 이해)을 설명한다. 그는 텍스트의 의미의 전유와 세상에서의 새로운 존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그의 해석 이론을 마무리 한다. 본 논문은 Ricoeur의 해석 이론의 각 범주에 대한 세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기보다는, 네 번째 단계인 설명과 이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하여 설교학적 담론을 구성하고자 한다.

Ricoeur는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함으로써 읽기의 해석을 강조한다: “어떤 담화가 텍스트나 문학 작품일 때, 그 담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글로 표현된 담화를 이해할 수 있는가?”⁹⁾ 이 질문에 대해서 Ricoeur는 읽기 행위가 설명과 이해의 변증법을 생성한다고 답한다. 이해와 읽기의 관계는 담화 사건과 담화 발화의 관계와 유사하며, 설명과 읽기의 관계는 언어적인 텍스

8) Paul Ricoeur, “The Task of Hermeneutics,” in *Hermeneutics and the Human Sciences*, trans. and ed. John B. Thomps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3.

9)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71.

트의 자율성과 담화의 객관적 의미와의 관계에 해당한다. Ricoeur에 따르면, “설명할 때 명제들과 의미들의 범위를 풀어내거나 펼쳐내지만, 이와 달리 이해할 때는 합하는 행위를 통해 부분적 의미들의 사슬을 하나의 전체로 이해하거나 파악한다.”¹⁰⁾ 따라서 해석은 설명과 이해가 의미를 창출하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Ricoeur에게 해석적 독서의 역동성은 이해에서 설명으로, 그리고 다시 설명에서 이해로 이동하는 변증법적 움직임이다. 이런 움직임의 첫 번째 단계에서 이해라는 것은 텍스트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순박(naïve)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이 초기 단계에서 이해는 하나의 추측(guess)에 불과하다.¹¹⁾ 전유(appropriation)의 개념을 충족하는 두 번째 단계에서 이해는 설명에서 이해로 넘어가는 단계, 즉 설명적 절차들의 도움을 받아 한층 정교해진 이해이다.¹²⁾

이러한 해석 과정의 결과 중 하나로 보여지는 독자에 의해 새로운 방식으로 드러나는 의미 전유의 사건은 텍스트의 완전한 객관화와 관련된 소격효과(distanciation)에 해당한다. 이러한 해석학적 읽기를 통해, 독자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하게 된다.¹³⁾ 전유의 과정은 추측, 설명, 이해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실천신학자인 Nancy L. Gross는 이런 전유의 과정을 ‘해석학적 스윙(swing)’이라고 부른다.¹⁴⁾

10)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72.

11) 구약학자인 Walter Brueggemann은 Ricoeur가 말하는 독자의 텍스트에 대한 순박함(naïveté)을 텍스트의 세계에 대한 ‘순수한 믿음’으로 표현한다. Walter Brueggemann, *The Psalms and The Life of Fait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243–253.

12)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74.

13) Paul Ricoeur, *Hermeneutics and Human Science: Essays on Language, Action, and Interpretation*, 윤철호 역, 『해석학과 인문사회과학』(서울:서광사, 2003), 327.

14) Nancy Lammers Gross, *If You Cannot Preach Like Paul...*,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2002), 114.

1) 추측에서 확인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추측해야 하는 필요성은 텍스트의 일종의 의미론적 자율성과 관련이 있다. 이는 사건과 의미의 변증법적 맥락에서 텍스트의 언어적 의미가 더 이상 저자의 의미나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Ricoeur는 글로 표현된 담론이 더 이상 누군가의 목소리가 아니며, 저자의 의미와 의도는 텍스트에 의해 성취되기도 하고 폐지되기도 한다고 강조한다. 텍스트는 악보와 같으며,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악보의 지시에 따르듯이 독자는 텍스트를 해석한다. 따라서 Ricoeur는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발화 사건을 비슷한 사건 속에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사건이 객관화되어 있는 텍스트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본다.¹⁵⁾

즉, 저자의 의미나 의도는 독자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독자는 텍스트의 의미를 추측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Ricoeur는 저자가 자신을 이해한 것보다 독자가 작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낭만주의 해석학에 반대한다. Ricoeur는 낭만주의자들이 “텍스트의 언어적 의미와 저자의 정신적 의도의 분리”로 인해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을 간과했다고 주장한다.¹⁶⁾ 이런 점에서 설교학자인 David S. Jacobsens는 독자가 해석을 통해서 도달해야 할 궁극적 목표는 저자의 의도가 아니라고 강조한다.¹⁷⁾ 이는 본문과 저자와의 독립적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독자는 본문에 의해서 투사되는 새로운 세계 내에서 존재 방식을 얻게 된다.¹⁸⁾

15)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75.

16) Ricoeur, “What Is a Text? Explanation and Understanding,” 111–14;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75.

17) David Schnasa Jacobsen, *Preaching in the New Creation: The Promise of New Testament Apocalyptic Text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9), 16.

18) 김대혁, “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위한 성경적 전유를 통한 적용에 관한 제안,” 47.

일차적인 해석적 주의를 요구하는 것은 저자의 의미와 표현이 아니라 텍스트의 언어적 의도이다. 저자가 속해 있다고 여겨지는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독자는 다른 방법으로 본문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독자는 텍스트의 언어적 의미와 의도를 추측해야 한다. Ricoeur는 “텍스트의 의미를 텍스트의 언어적 의미로서 추론하는 것이 곧 추측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¹⁹⁾ 그는 올바른 추측을 위한 규칙을 제안하지는 않지만 추측한 것을 확인(validate)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추측을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은 텍스트의 언어적 의미를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글로 표현된 것으로서의 담화보다는 작품으로서의 담화를 분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 작품으로서의 담화 전체는 주제들과 부수적 주제들의 위계 구조의 형태로 나타나는 부분을 인식하기 위해 말하기 때문에 전체가 된다. 이는 작품으로서의 전체 담화는 부분들의 인식에는 전체가 함축되어 있고, 상호적으로 부분들은 전체에 의해 해석되는 순환적 과정에 따라 복수적인 구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⁰⁾

추측을 확인하는 두 번째 방법은 텍스트를 개체로 해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해석이 갖는 추측의 특성에 토대가 되는 일면성이 드러난다. 이는 하나의 문장을 여러 문장과 연결하여 인식된 대상을 재구성할 때 발생하는데, 하나의 단일한 전체로서의 텍스트는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모든 측면에서 한꺼번에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고유한 작품으로서의 담화 작품은 포괄적인 개념(generic concepts)들의 범위를 좁혀가는 과정을 통해 접근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포괄적인 개념들에는 문학 장르, 텍스트의 범주, 텍스트 내에서 교차하는

19)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76.

20)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76-77.

약호와 구조의 유형이 포함된다. 이렇게 고유한 텍스트의 국지화 및 개체화는 본질적으로 추측하는 행위이다.²¹⁾

추측을 확인하는 세 번째 방법은 잠재적인 의미의 지평을 해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잠재적 의미의 지평은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언어를 통해 드러나며, 이는 일반적인 의미의 문제에 복수적 의미의 문제를 추가한다. 즉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언어를 통해 나타나는 이차적 의미는 지각된 대상들을 둘러싸면서 작품을 다양한 읽기 방법에 대해 열어놓는다. 그러므로, 다양한 읽기 방법의 규칙을 해석 작업에 적용하기 전에 먼저 그 규칙을 추측해야 한다.²²⁾

2) 설명에서 이해로

추측으로서의 이해와 확인으로서의 설명 사이의 변증법은 사건과 의미 사이의 변증법과 거의 일치한다. 추측으로서의 이해는 첫 번째 사건이 객관화된 텍스트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사건을 생성하고, 설명은 그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의미론적 확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그것은 의미와 지시의 변증법과 연관된다. 독자가 텍스트를 읽고 이에 반응하는 행위는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²³⁾ Ricoeur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독자의 입장에서 지시된 모든 실재에 대해 일종의 유보 상태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또는 상상력을 통해 독자의 새로운 상황 속에서 텍스트의 잠재적인 비명시적 지시들을 실제화할 수 도 있다. 첫번째 경우에서 우리는 텍스트를 세계성을 상실한 실체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경우에서 우리는 읽은 행위가 함축하는 “실행”

21)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77–78.

22)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78.

23)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80.

덕분에 새로운 명시적 지시를 창조한다.²⁴⁾

첫 번째 읽기 방식은 다양한 구조주의 문학 비평 학파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데, 텍스트에서 어떤 종류의 명시적 지시를 유보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이다. 명시적 지시의 유보를 연기하는 것은 텍스트에 더 이상 외부 지시가 없고 내부 세계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닫힌 기호 체계로서의 텍스트의 구조적 분석은 텍스트의 해석에 대한 설명적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주의적 설명은 해석이 아닌 설명일 뿐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Ricoeur는 “여기서 텍스트는 단지 하나의 텍스트일 뿐이며, 읽기는 그것이 하나의 텍스트인 한에서만 텍스트 안에 머무는데, 이는 텍스트의 의미가 유보되고, 현재의 담화를 통한 모든 현실화가 지연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²⁵⁾ 따라서 이 초기 단계의 읽기는 텍스트에 대한 두 번째 보다 정교한 해석의 기초로 기능한다.

두 번째 읽기 방식은 텍스트 너머 세계의 맥락에서 폭넓은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텍스트의 구조적 분석에 의해서 소개된 세계에 대한 질문을 통해 텍스트의 세계와 텍스트 너머의 세계 사이의 연결점과 단절점에 대한 심층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Ricoeur는 이를 이렇게 표현한다: “구조 분석의 기능은 우리를 표면적 의미에서 ... 심층적 의미로 이끄는 것이다.”²⁶⁾ 다시 말해, 구조적 분석은 표면적 해석과 심층적 해석 사이에 필요한 단계이다. 텍스트의 비명시적 지시는 텍스트의 의미와 관련된 심층적 의미에 의해서 열려지는 세계이다. Ricoeur는 “텍스트의 의미는 텍스트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앞에 있으며, 그것

24)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81.

25)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84.

26)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87.

은 숨겨진 무엇이 아니라, 드러난 무엇이다”라고 주장한다.²⁷⁾

이때 텍스트에 대해 이해해야 할 것은 담화의 초기 상황, 저자,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텍스트의 지시에 의해 열린 세계-명제이다. 다시 말해, 텍스트를 이해한다는 것은 “의미에서 지시로—즉, 텍스트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에서 그것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옮겨 가는 그 움직임을 따라 가는 것”이다.²⁸⁾ 신약학자인 Sandra M. Schneiders는 그 움직임을 따라 가다보면 새로운 삶의 지평을 얻게 된다고 강조한다.²⁹⁾

텍스트의 구조적 분석은 객관적인 접근 방식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텍스트에 대한 주관적인 접근 방식을 바로 잡아준다. Ricoeur는 “텍스트의 의미는 텍스트가 던지는 하나의 명령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하나의 새로운 방식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라는 하나의 명령”이라고 주지한다.³⁰⁾ 이런 점에서, 텍스트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언급과 함께 현실 세계 내에서의 새로운 존재 방식을 창조한다.

3) 소격과 전유

모든 해석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독자가 세상에서 새로운 존재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³¹⁾ Ricoeur에 따르면, “텍스트는 가능한 세계에 대해,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방향 짓는 가능한 방식에 대해 말하며, 이 세계의 차원들은 텍스트에 의해 적절히 열리기도

27)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87.

28)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87–88.

29) Sandra M. Schneiders, *The Revelatory Text: Interpreting the New Testament as Sacred Scripture*, 2nd ed.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1999), 167–168.

30)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88.

31) 전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Paul Ricoeur, “Appropriation,” in *Hermeneutics and the Human Sciences*, trans. and ed. John B. Thomps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144–56.

하고 닫히기도 한다.”³²⁾ 이 새로운 세계와 존재 방식은 소격과 전유를 통해서 창조된다.

Ricoeur는 독자와 텍스트 사이의 낯설음으로 설명될 수 있는 생산적 소격은 인식론적 도구로 변형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Ricoeur에 따르면, “설명과 이해의 변증법은 . . . 실존적 변증법의 인식론적 차원을 구성한다. 이러한 변증법의 기초 위에서, 생산적 거리는 곧 방법론적 소격을 의미한다.”³³⁾ 텍스트의 의미론적 자율성은 작가와 독자 사이의 매개가 된다. 텍스트 해석에 있어서 설명과 이해 사이의 변증법은 독자와 텍스트 사이의 소격이라는 실존적 개념뿐만 아니라 인식론적 개념도 생성한다. 그러나 독자의 텍스트 전유는 이러한 소격을 통해서 가능하다.³⁴⁾ Ricoeur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이전에 “낯설었던” 것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여전히 모든 해석학의 궁극적 목적이다. 해석은 그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비슷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동등하게 하고 동시성을 산출하며 동화시키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 목적은 해석이 현재의 독자를 위해 텍스트의 의미를 실제화할 때 성취된다.³⁵⁾

Ricoeur는 의미가 누군가에게 말해짐으로써 실제화 된다는 개념으로 전유를 설명한다. 그는 “해석은 읽기가 하나의 사건, 즉 지금 이 순간의 담화 사건을 산출할 때 전유로서 완성되며, 전유로서, 해석은 하나의 사건이 된다”고 본다.³⁶⁾

32)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88.

33)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89.

34)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89–91.

35)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91–92.

36)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92.

전유해야 하는 것은 저자의 의도나 본래 독자들의 기대가 아니다. 오히려 Ricoeur는 독자가 전유해야 하는 것은 저자의 의도가 아니라, 텍스트 자체의 의미, 곧 텍스트가 열어주는 생각의 방향에 따라 역동적으로 인지된 텍스트의 의미라고 강조한다. 텍스트가 갖는 진정한 지시적 힘은 다른 자아(저자)의 내적 삶과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바라보는 다양한 방식의 탈은폐”에 있다.³⁷⁾ Ricoeur에게 있어서, 탈은폐와 전유 사이의 이러한 연결은 텍스트의 지평을 확대한다. 이러한 점에서, 전유는 직접적인 호소 같은 것과는 관련이 없다. 대신, “독자의 세계 지평은 작가의 세계 지평과 융합”되는 것이다.³⁸⁾ 재차 강조하여 말하자면, 본문은 저자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독자는 본문에 의해 투사된 세계 내에서 새로운 존재 방식을 제안 받게 되고 전유는 저자에 의해 말해진 것을 재 활성화 할 때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전유는 텍스트에 대한 본래 수신자의 반응에 의존하지 않는다. 텍스트의 의미는 모든 시간에 편재하는 특성(omni-temporality)으로 인해 텍스트를 읽는 모든 독자에게 열려 있다. Ricoeur가 말했듯이 “텍스트는 저자와 그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본래의 청중에게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³⁹⁾ 텍스트의 의미의 보편성은 텍스트가 원저자와 청중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보장된다. 텍스트의 전유에 있어서 또 고려해야 할 것은 텍스트의 의미가 전유될 때 해석은 독자의 유한한 이해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오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둔다면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37)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92.

38)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93.

39)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93.

곧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진 것은 정신적인 어떤 것이나 텍스트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는 다른 주체의 의도가 아니라 세계의 투사라는 것, 다시 말해, 전유란 곧 텍스트가 비명시적인 지시를 통해 그 앞에 펼쳐 보여 주는 세계-내적 존재 방식의 제시이다.⁴⁰⁾

해석의 과정은 독자가 자신의 선험적 이해를 텍스트에 투영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해석은 새로운 존재 방식을 탈은폐함으로써 독자가 텍스트를 통해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는 과정이다. Ricoeur는 “독자는 텍스트 자체로부터 새로운 존재 방식을 부여받음으로써 자기-투사의 능력이 확장하게 된다”고 주지한다.⁴¹⁾

이런 의미에서 전유는 더 이상 일종의 소유로 간주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이기적인 자아를 버리는 순간을 의미한다. Ricoeur는 “오직 텍스트의 명령에 순응하고, 의미의 ‘화살표’를 따라가면서, 이에 따라 사유하고자 하는 해석만이 새로운 자기-이해를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한다.⁴²⁾ 이처럼 새로운 의미와 이해를 창조하는 것은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지평이 융합을 통해 자아(the ego)에게 자기(a self)를 부여하는 힘을 가진 텍스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해석의 전체 과정은 세상에서 존재하는 새로운 방식을 강화하고 확대한다.

2. Paul Ricoeur의 해석 이론의 설교학적 적용

Ricoeur의 해석 이론은 설교자가 본문을 해석하고 읽는 과정에 대한 설교학적 함의를 갖는다. 설교자가 설교할 본문을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해석학적 과정은 말씀이 선포될 때까지 지속된다는 점에서 설

40)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94.

41)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94.

42)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94.

교의 전 과정이 해석학적 과정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텍스트에 대한 Ricoeur의 해석학적 방법은 먼저 이해에서 설명으로, 그 다음 설명에서 이해로 이동하는 긴장된 변증법적 과정의 산물임을 일깨워준다. 즉, 텍스트에 대한 해석 과정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로, 텍스트의 세계에서 우리의 세계로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는 않는다.⁴³⁾ 필자는 Ricoeur의 해석 이론을 바탕으로 설교학적 함의의 특징을 여섯 가지로 정리하여 본문에 대한 해석학적 과정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1) 독자와 저자의 관계

Ricoeur의 텍스트 해석 과정은 독자의 주석적 과정의 목표가 저자의 의미와 정신적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독자와 저자가 완전히 분리된 본문의 자율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들의 관계는 본문을 매개로 하여 더욱 넓어지고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된다.⁴⁴⁾ Ricoeur가 염려하는 바는 해석의 대상을 본문의 배후에 있는 세계(저자의 정신적 의도나 의미)로 정하게 될 때,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될 독자의 자의적 혹은 주관적 해석이다. 사실상 독자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오늘 선포되어야 할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아닐 수 있다. 독자로서의 설교자는 저자가 의도한 바를 설교의 주된 내용으로 삼고자하는 관념에 갇히지 않을 때, 저자의 사고의 상황화를 통해 복음이 청중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받

43) David Tracy, *Plurality and Ambiguity: Hermeneutic, Religion, Hope* (San Francisco: Harper & Row Publishers, 1989), 19-20.

44) Merold Westpal, *Whose Community? Which Interpretation: Philosophical Hermeneutics for the Church*, 김동규 역, 『교회를 위한 철학적 해석학』 (서울: 도서출판 100, 2019), 98.

견할 수 있다.⁴⁵⁾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텍스트가 저자의 의도에서 벗어나면, 제한된 해석의 범위를 통해 보다 의미 있는 지시의 세계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제한된 해석의 범위는 텍스트 그 자체를 의미하는데, 본문의 가능한 의미들의 범위는 본문의 의미에 의해서 결정된다. 물론 여기서 본문의 의미는 저자의 의도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텍스트가 쓰여 지고 저자의 손에서 떠나게 되면, 본문의 의미는 저자의 의미를 초월한다. 본문은 저자의 의도보다 더 넘쳐나는 의미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⁴⁶⁾ 다시 말해, 본문은 청중의 상황을 만날 때 본문의 배후에 있는 세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복음은 새로운 문화, 상황, 언어 속에서 다시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새로워지고 신선해진다.⁴⁷⁾ 따라서 독자로서 설교자는 본문이 오늘날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어떻게 가리키는지 알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⁴⁸⁾

2) 의미의 잉여

Ricoeur의 해석 방법은 독자가 새로운 단어를 듣고 텍스트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Ricoeur가 강조했듯이, 쓰여진 글이 저자의 의미를 수정할 수 있는 능력에서 자유로워질 때 텍스트는 그 자체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는 텍스트가 가리키는 세계가 특정 시간과 장소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전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5) Gross, *If You Cannot Preach Like Paul*..., 96.

46) Gross, *If You Cannot Preach Like Paul*..., 95.

47) 이승진, “해석과 선포를 포괄하는 설교학적인 해석학에 관한 연구”,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39 (2016): 158-60.

48) Gross, *If You Cannot Preach Like Paul*..., 96-97.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해석이 다른 해석만큼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주어진 텍스트가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관계를 맺을 때 의미의 잉여가 발생하며, 이는 텍스트의 의미가 더 이상 그 텍스트가 쓰여진 상황에만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미의 잉여는 하나 이상의 특정 의미가 텍스트의 방향과 잠재적으로 일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⁴⁹⁾

Ricoeur의 의미의 잉여 개념은 독자에게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텍스트의 세계에 대한 신선하고 새로운 관점을 획득할 수 있게 한다. 설교학자인 Thomas Long은 설교자의 통찰력과 직감을 시험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와 학자들의 생각과 관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⁵⁰⁾ Long은 “책임감 있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테이블에 많이 모일수록 분명히 대화가 더 풍성해지고 더욱 흥미로워질 것”이라고 말한다.⁵¹⁾ 대부분의 주석은 역사적, 문학적, 신학적 근거를 다루며 설교자의 편견과 본문에 대한 선 이해를 다듬고 도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독자로서의 설교자는 자신의 성서적 자료들을 폭넓게 확장하여 새로운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본문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말씀과 관점에 열려 있어야 한다.

3) 본문이 열어주는 세계

Ricoeur의 텍스트 해석 과정은 독자가 텍스트에 의해 열리는 세계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준다.⁵²⁾ 이러한 해석학적 과정에서 텍스트는 급진적인 방식으로 주체로 특징지어진다. 독자로서의 설교자가 본문이

49)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36–37.

50) Thomas G. Long, *The Witness of Preaching*, 2nd ed.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5), 95.

51) Long, *The Witness of Preaching*, 96.

52)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92.

자신과의 대화에서 주제임을 확신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자신에게 말씀하신다는 확신과 일치하는 비평적 방법론을 발견하게 된다. 본문의 새로운 의미를 찾는 설교자의 주석적 기술에 대한 확신은 설교자를 위한 새로운 사건을 창조하는 본문에 대한 확신으로 대체된다. 새로운 사건의 가능성은 독자로서 설교자에게 본문이 문자 그대로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본문에 의해 열리는 세계를 가리킨다는 점을 강조한다.⁵³⁾ 도미니코회 신학자인 William Hill은 이를 “더 완전한 의미(sensus plenior)”, 즉 “본문의 명시적인 의미를 넘어선 하나님께서 직접 의도하신 더 깊은 의미(인간 저자에게 명확히 의도되지 않았던 부가적인 의미)”라고 부른다.⁵⁴⁾

독자로서의 설교자는 본문이 열어주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기를 소망한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독자로서의 설교자는 본문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갈 수 있는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⁵⁵⁾ 해석의 과정에서 독자로서의 설교자는 본문이 바라보는 곳과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본문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독자로서 설교자는 본문에 대한 질문들을 함으로써 본문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⁵⁶⁾ Herbert McCabe는 이런 의사소통의 독특성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한다.⁵⁷⁾ 본문과 질문을 주고 받으며 대화하는 방식으로 독자로서 설교자는 본문이 가리키는 세계와의 만남을 통해 본문이 창조하는 힘을 지닌 새로운 사건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⁵⁸⁾

53) Gross, *If You Cannot Preach Like Paul . . .*, 101–2.

54) William J. Hill, “Preaching the Word: The Theological Background,” in *Search for the Absent God: Tradition and Modernity in Religious Understanding*, ed. Mary Catherine Hilkert (New York: Crossroad, 1992), 171.

55)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93.

56) Long, *The Witness of Preaching*, 81.

57) Herbert McCabe, *The New Creation* (New York: Continuum, 2010), 3.

58) Gross, *If You Cannot Preach Like Paul . . .*, 102.

4) 자아의 포기

Ricoeur의 해석 이론은 독자가 텍스트의 세계 앞에서 자아와 자기애적 경향을 포기하도록 유도한다.⁵⁹⁾ 이는 독자의 자의적 혹은 주관적 해석에서 벗어나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아가 본문에 의해서 투사되는 세계 내에서 새롭게 제안 받을 존재 방식에 대한 예비적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좀 더 명확히 말하자면, 이는 텍스트의 주관성과 관련이 있으며,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세계의 보편적 힘을 독자가 높이 평가하고 의지해야 함을 시사한다. 독자로서 설교자는 올바른 관점에서 분석 도구를 사용하면서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기 위해 성경 본문의 배경에 대한 지식을 모으는 다양한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 분석적 방법에 능숙하면 독자로서 설교자가 본문에 몰입하여 본문의 새롭고 신선한 말씀을 듣는 데 도움이 된다.⁶⁰⁾

독자는 분석적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는, 독자는 자아 중심적 인식으로 본문의 세계를 알고 정의하고자 하는 욕구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는 경향은 역전된 것이다. 즉, 독자는 은혜의 수단으로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어진 본문에 의해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본문에 의해 독자가 바라보아짐으로 자아 인식이 비로소 파악되고 전환되는 것이다. 이것은 본문과의 소격을 의미하며, 이는 독자가 본문에 대한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⁶¹⁾ 독자로서의 설교자가 본문에 의해 이해되어지기 위해서는 본문이 드러내는 모호함을 받아들이고 본문으로 인해 당혹스러울 것이라는 모든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 독자로서의 설교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59)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87, 94–95.

60) Gross, *If You Cannot Preach Like Paul . . .*, 103.

61)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43–44.

오히려 그 정체성 안에서 믿음으로 약속된 말씀에 의해 본문이 드러내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능동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Nancy L. Gross는 설교자를 본문을 통해 매개되는 독자의 확신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독특하고 권위 있는 증인으로서 성경에 겸손히 접근할 때, 성경이 화살처럼 가리키는 복음의 세계를 함께 바라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져 가도록 우리의 정치적인 사상들을 기꺼이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계속해서 이루실 것이다.⁶²⁾

그러므로 독자로서 설교자는 본문이 자신을 더 신실한 길로 인도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5) 의미의 전유

Ricoeur의 해석 이론은 성서적 내러티브의 상징적 성격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성서적 상징을 해석하는 Ricoeur의 방법은 독자에게 성경 본문의 역사적 측면과 상징적 측면 모두에 대한 실행 가능한 해석학적 선택을 준다. 텍스트의 의미가 전체적으로 순진하게 파악되는 단계, 소위 첫 번째 순박함(the first naïveté)에서 독자는 성서적 내러티브를 역사적 기록으로 간주한다.⁶³⁾ 이 첫 번째 순박함을 반영하는 독자는 텍스트의 역사적 맥락에서 인물에 너무 몰입되어 독자가 성경과 같은 텍스트의 상징적 성격을 재-경험할 수 없다. 그러나 Ricoeur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스트의 더 깊은 의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순박함

62) Gross, *If You Cannot Preach Like Paul* . . . , 104.

63)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74.

을 거쳐야 한다고 말한다. Ricoeur는 비평적 방법을 통해 독자가 성서적 내러티브에 나타난 상징의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즉, 텍스트의 상징을 재경험하거나 전유하기 위해서는 설명이나 비평적 의식이 요구된다.⁶⁴⁾

비평적 의식이나 설명의 단계에 대해 Ricoeur는 표면적 의미론에서 심층적 의미론으로 이어지는 텍스트의 구조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⁶⁵⁾ Ricoeur에 따르면 이러한 종류의 구조 분석을 통해 독자는 텍스트에서 상징의 지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순박함(the second naïveté)에서 독자는 텍스트의 상징을 먼저 접한 다음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미로 텍스트의 상징을 전유할 수 있다. Ricoeur의 해석학적 방법은 독자로 하여금 텍스트 자체가 열어주는 세계의 의미를 전유할 수 있는 해석학적 구조를 제공한다. 나아가 독자로서 설교자는 본문의 상징을 청중의 삶의 자리로 연결함으로써 본문이 제공하는 은혜와 생명을 청중이 경험할 수 있는 만남을 촉진해야 한다.

6) 변혁적 읽기

Ricoeur의 해석학적 방법은 독자로서 설교자가 본문을 만나는 경험을 진척하기 위한 해석학적 상황과 성경 본문의 변혁적 읽기의 역동성을 설명할 수 있는 어휘를 제공한다. 성경의 변혁적 읽기는 설교자가 무언가를 아는 것이 설교자를 실존적으로 변화시키는 존재론적 사건과 관련이 있다. 독자로서의 설교자와 텍스트의 만남은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의미의 사건으로 표현되며, 해석의 과정을 통해 설교자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⁶⁶⁾

64)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80–81.

65)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87.

66) Paul Ricoeur, *Time and Narrative*, vol. 1, trans. Kathleen McLaughlin and David Pellaue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53.

독자로서의 설교자와 본문 사이의 만남과 관련하여 Sandra M. Schneiders는 설교자의 본문에 대한 변혁적 참여를 “본문과 독자의 다양하고 복잡한 차원을 고려하는 상호작용”으로 표현한다.⁶⁷⁾ Schneiders는 Ricoeur의 해석 방법을 사용하여 정보를 얻기 위해 텍스트를 읽는 것과 변혁을 위해 텍스트를 읽는 것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Schneiders에 따르면, 독자로서의 설교자는 주로 정보를 얻기 위해, 즉 “지적으로 깨달음을 얻거나 개인적으로 회심하기 위해” 성경 본문을 읽을 수 있는 반면, 변혁을 이루기 위해, 즉 “단순히 본문이 말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넘어서서 본문이 말하는 것이 참인지,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참인지, 독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개인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성경 본문을 읽는다.⁶⁸⁾

나아가 Ricoeur에 따르면 의미의 사건은 의미와 지시의 변증법을 통해 실현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본문의 새로운 의미는 정보(의미의 첫 번째 단계에서 본문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위한 본문 읽기에서 발생하는 의미(무엇을 말하는 지)와 지시(무엇에 관한 것인지)가 결합하여 구성되며, 청중들의 삶의 맥락을 통한 설교자의 세계는 본문의 새로운 지시에 따른 변혁을 위한 정보 읽기로부터 형성되며, 이는 독자에게 새로운 존재 방식을 부여함으로써 독자의 자기 투사 능력을 확대한다.⁶⁹⁾ 이런 의미에서 성경 본문에 대한 변혁적 참여인 의미의 사건은 본문의 세계(본문의 최초 의미와 지시)와 독자로서의 설교자의 세계(민음의 공동체의 맥락을 통한 설교자의 존재 방식) 사이의 지속적인 참여로 표현할 수 있다.⁷⁰⁾ Schneiders는 이 과정을 비판적 실존적 해석이라고 설명한다:

67) Schneiders, *The Revelatory Text*, 3.

68) Schneiders, *The Revelatory Text*, 13–14.

69)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94.

70)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92–95.

텍스트의 의미 전유, 즉 해석의 변혁적 성취는 독자에 의한 텍스트의 숙달(방법의 적용을 통한 의미 추출)이나 텍스트에 의한 독자의 숙달(텍스트가 말하는 것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주체에 대한 텍스트와의 지속적인 대화이다.⁷¹⁾

Ricoeur는 이를 텍스트가 투사하는 의미의 세계에 대한 독자의 전유라고 표현한다. 텍스트가 투사하는 세계에 존재하는 방식은 종종 도전적이기 때문에 독자는 본문과의 그러한 만남을 통해 변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⁷²⁾ Schneiders의 말처럼 “텍스트는 변혁적인 신적 계시의 매개체”이다.⁷³⁾ 마찬가지로 텍스트가 투사하는 세계는 설교자와 청중 모두에게 변혁의 현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변혁은 설교자와 회중 모두에게 세상 속에서 자신의 존재 방식, 즉 새로운 자기 이해를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준다. Ricoeur는 “본문의 명령에 순응하고, 의미의 ‘화살표’를 따라가면서, 이에 따라 사유하고자 하는 해석만이 새로운 자기-이해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한다.⁷⁴⁾ 회중의 삶의 상황에서 독자로서 설교자의 세계는 세상에서 또 다른 존재의 방식을 투사하는 본문에 의해 도전을 받는다. 그러므로, 설교자와 청중 모두 성경을 변혁적으로 읽음으로써 변혁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본문으로부터 격려를 받는다. William Hill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생명과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의 중간 지점인 인류의 역사에 성육신한다”라고 말한다.⁷⁵⁾

71) Schneiders, *The Revelatory Text*, 177.

72)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94–95.

73) Schneiders, *The Revelatory Text*, 177.

74)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94.

75) William J. Hill, “Preaching as a Moment in Theology,” in *Search for the Absent God*, ed. Mary Catherine Hilkert (New York: Crossroad, 1992), 186.

III. 나가는 글

본 논문은 Ricoeur의 해석학이 텍스트의 의미를 원래 문맥에서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과 텍스트를 실존적으로 전유하는 것 사이를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보여 주고자 하였다. 필자는 Ricoeur의 해석학적 방법을 통해 언어에 대한 의미론적 접근의 중요성이 사건적 만남을 초래함을 발견하였다. 나아가, 긴장된 변증법적 과정에서 이해와 설명을 유지하는 것이 해석 자체가 단순히 이해와 설명 사이의 단계가 아니라 해석의 새로운 차원을 가져올 것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먼저 이해에서 설명으로, 그 다음 설명에서 전유로 이동하는 긴장된 변증법적 과정은 텍스트의 세계와 독자의 세계가 지속적인 대화에 참여하는 역동적인 해석 과정을 생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했다.

계속해서, Ricoeur의 해석 방법에 기초하여 성경 본문을 접할 때 새로운 해석학적 과정을 위한 설교학적 담론의 여섯 가지 특징을 설명하였다. Ricoeur의 해석 방법은 본문에 대한 독자의 해석학적 접근에 기여하며, 본문과 청중 사이의 가장 풍부한 만남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Ricoeur는 텍스트의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독자가 텍스트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신선한 단어에 깊이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Ricoeur의 해석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청중들의 삶의 맥락에서 설교자의 존재 방식이 본문의 새로운 지시를 통해 변혁되는 성경 본문의 변혁적 읽기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Ricoeur의 해석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독자로서 설교자의 해석학적 과제를 파악하는 것은 첫 번째 순박함에서 비평적 성찰을 통해 두 번째 순박함으로 나아가는 긴장된 변증법적 과정에 대한 사고를 불러일으킨다.

이 과정을 통해 독자로서의 설교자는 모인 믿음의 공동체의 삶의 맥락을 통해 본문의 진리를 접하고, 본문이 투사하는 세계로 들어간다. 설교자와 함께 모인 믿음의 성도 모두가 초대되는 이 의미의 세계는 새로운 의미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설교자와 청중 모두 텍스트의 다양한 수준과 의미에 참여하면서 텍스트에 굴복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유 과정의 잠재적 결과는 설교자와 청중의 세계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함께 모인 믿음의 공동체의 맥락에서 본문의 세계와 설교자의 세계가 만나서 생성되는 새로운 이해는 설교자와 청중 모두의 세계를 변화시킨다. 따라서 설교자와 청중 모두의 영성은 성서 본문과의 해석학적 만남의 생동감을 통해 형성된다.

【 참고문헌 】

- 김대혁, “‘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위한 성경적 전유를 통한 적용에 관한 제안”. 「복음과 실천신학」 52 (2019), 38–70. <https://doi.org/10.25309/kept.2019.8.15.038>
- . “성경에 나타난 ‘전유를 통한 적용’에 관한 해석학적 · 설교학적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54 (2020), 41–70. <https://doi.org/10.25309/kept/2020.2.15.041>
- . “Abraham Kuruvilla의 설교 방법론에 관한 비평적 평가”. 「복음과 실천신학」 60 (2021), 11–44. <https://doi.org/10.25309/kept.2021.8.15.011>
- 박성환, “설교 묵회: 설교를 통한 성경 묵상”. 「복음과 실천신학」 47 (2018), 77–114. <https://doi.org/10.25309/kept.2018.5.15.077>
- 이승진, “해석과 선포를 포괄하는 설교학적인 해석학에 관한 연구”.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39 (2016): 144–177.
- 최진봉, “폴 리피르의 ‘믿음의 해석학’ (Hermeneutic of Belief)에 대한 설교학적 전망”. 「장신논단」 46 (2014), 275–301.
- . “설교를 위한 본문의 해석학적 스윙(swing)의 실행에 관한 연구: 창 8:21–22, 9:8–17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87 (2023), 35–61. <https://dx.doi.org/10.14387/jksph.2023.87.35>
- Brueggemann, Walter. *The Psalms and The Life of Fait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 Gross, Nancy Lammers. *If You Cannot Preach Like Paul....*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2002.
- Hill, William J. “Preaching the Word: The Theological Background.” In *Search for the Absent God: Tradition and Modernity in Religious Understanding*. Edited by Mary Catherine Hilker, 167–176. New York: Crossroad, 1992.
- . “Preaching as a Moment in Theology,” in *Search for the Absent God*, ed. Mary Catherine Hilker. New York: Crossroad, 1992.
- Jacobsen, David Schnasa. *Preaching in the New Creation: The Promise of New Testament Apocalyptic Text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9.

- Long, Thomas G. *The Witness of Preaching*, 2nd ed.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5.
- McCabe, Herbert. *The New Creation*. New York: Continuum, 2010.
- Ricoeur, Paul. *Hermeneutics and Human Science: Essays on Language, Action, and Interpretation*, 윤철호 역. 『해석학과 인문사회과학』. 서울:서광사, 2003.
- . *Interpretation Theory*. 김윤성 역. 『해석 이론』. 서울:서광사, 1998.
- . “The Task of Hermeneutics.” In *Hermeneutics and the Human Sciences*, translated and edited by John B. Thompson, 3–2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 . *Time and Narrative*, vol. 1, trans. Kathleen McLaughlin and David Pellaue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 Schleiermacher, Friedrich. *Hermeneutik und Kritik mit besonderer Beziehung auf das Neue Testament*. 최신한 역. 『해석학과 비평: 신약성서와의 특별한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철학과 현실사, 2000.
- Schneiders, Sandra M. *The Revelatory Text: Interpreting the New Testament as Sacred Scripture*, 2nd ed.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1999.
- Tracy, David. *Plurality and Ambiguity: Hermeneutic, Religion, Hope*. San Francisco: Harper & Row Publishers, 1989.
- Westpal, Merold. *Whose Community? Which Interpretation: Philosophical Hermeneutics for the Church*, 김동규 역. 『교회를 위한 철학적 해석학』. 서울:도서출판 100, 2019.

【 Abstract 】

Homiletical Discourse Based on Paul Ricoeur's
Interpretation Theory

Woori Han

This paper seeks to construct homiletical discourse in light of French philosopher Paul Ricoeur's interpretive theory of the text. Ricoeur's interpretive method goes beyond the affirmation of the historicity and immediacy of the text and opens up the possibility of facilitating the reader's experiential encounter with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text. Ricoeur's hermeneutical insights can serve as an appropriate hermeneutical alternative for today's modern readers with a more critical and less simplistic worldview. This hermeneutical approach to the text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a personal re-experience of the text by moving away from an emphasis on the immediate meaning of the text and pursuing exploration of the overflowing meaning of the biblical text. Ricoeur proposes employing a dialectical movement between explanation and understanding in which the reader moves from understanding to explanation and then from explanation to appropriation in the process of exploring the meaning of the text. Through explanation or critical inquiry about the text, the reader acquires new meanings that the text opens up. The preacher, as reader, gains a new way of being within the world opened up by the text by participating in the world it refers to. By analyzing Ricoeur's hermeneutical insights, the author seeks to clarify six characteristics of homiletical discourse that preachers as readers can apply to their method of interpreting the biblical text. Lastly, this paper introduces the possibility of a transformative reading of the Bible that enables a new mode of being for the preacher as a reader through the totality of new sense and reference projected by the text.

Key Words : Paul Ricoeur, The Meaning of the Text, Appropriation, The World in front of the Text, Transformative Reading